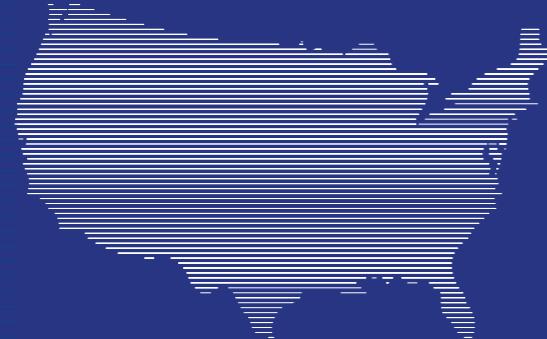


2015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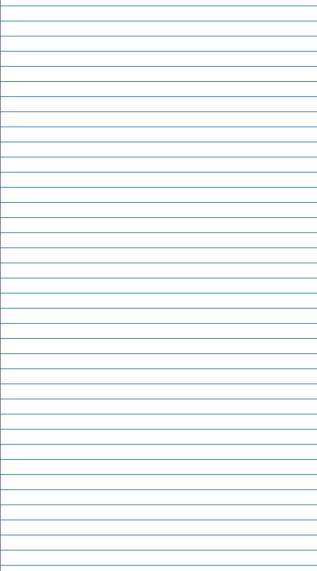




2015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2015년 10월 13일부터

2015년 10월 18일 까지

PART 01
한·미 정상회담

PART 02
안보동맹
강화

PART 03
첨단산업
경제협력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

주요 일정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 서울공항 출발
- 미국(워싱턴 D.C.) 도착
- 공항도착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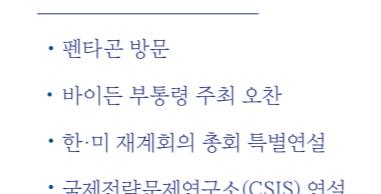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 한국전 참전 기념비 현화
-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 한·미 우호의 밤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 펜타곤 방문
- 바이든 부통령 주최 오찬
- 한·미 재계회의 총회 특별연설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 한·미 정상회담
- 오찬 회담
- 공동 기자회견
- 공항출발행사
- 미국(워싱턴 D.C.) 출발



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 서울공항 도착

PART 01
한·미 정상회담

page. 5

PART 02
안보동맹
강화

page. 9

PART 03
첨단산업
경제협력

page. 19

한국과 미국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화하는 동맹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금번 미국 방문은 박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특별히 이번 방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광복 70주년 및 분단 70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해에 이뤄진 것으로 한·미 동맹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동맹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 동북아 평화와 협력 증진 방안,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최초로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알리고,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에도 참석했다.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두 차례 자리를 함께하고, <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 대한민국 정상 중 두 번째로 방문함으로써 우주, 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보건의료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펜타곤 방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 안보동맹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도 소화했는데 금번 미국 방문은 양국간 기존의 협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분야(New Frontier)에서의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NEW
FRONTIER

강력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다

- 한·미 정상회담
- 오찬 회담
- 공동 기자회견
- 바이든 부통령 주최 오찬

2015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
2015.10.13. - 2015.10.18.



NEW
FRONTIER

한·미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버락 오바마(Barak Obama)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강력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독 정상회담, 오찬 회담, 공동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으며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핵·북한 문제에 특화된 별도의 공동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도발에 따른 한·미 공조를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



이어지는 오찬회담에서는

- ◇ 양국간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 ◇ 범세계적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 경제협력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정책을 포함, 주요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외교를 더욱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공간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우주, 보건안보, 사이버 안보 등에서의 양국간 협력 확대를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 2 한·미 공동기자회견 | 20151016



3 4 한·미 오찬회담 | 20151016

“
 미국과 새로운 분야의 협력, 새 지평을 여는 데는 예를 들면 기후변화, 우주탐사, 감염병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이기도 한데, 이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첨단기술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양국이 공동기술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FTA를 통해 시작된 양국의 경제동맹이 고부가가치 미래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대합니다.

”

기자회견 中 - 박근혜 대통령 -

“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토대 위에 있습니다.
 군사, 경제, 과학, 개발,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탄한 동맹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자회견 中 - 오바마 대통령 -



1



1 한·미 공동기자회견 | 2015.10.16
 2 한·미 정상회담 | 2015.10.16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의 초청으로 부통령 관저(Naval Observatory)를 방문해 오찬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굳건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부통령이 관저로 아시아 국가의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 12월 「바이든 부통령」 방한시에만해도 전작권 반환, 방위비분담 등 만만치 않은 현안이 많았는데,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미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부통령」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 현안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잊어버리기 쉬운데, 박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해관계가 뒤얽힌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과 함께 미국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이 밖에도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오찬을 이어갔다.

금번 「바이든 부통령」과의 오찬 협의는 한·미 동맹의 각별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다방면에 걸친 의견 교환을 통해 한반도·동북아·글로벌 차원에서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1



2

1 2 3 바이든 부통령 주최 오찬 | 2015.10.16



3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더 큰 평화와 번영의 꿈을 공유하다

- 한국전 참전 기념비 현화
- 한·미 우호의 밤
- 펜타곤 방문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

2015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
2015.10.13. - 2015.10.18.



NEW
FRONTIER

“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의미를 되새기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현화를 시작으로 미국 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양국 국가가 차례로 연주되는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 현화, 묵념순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유엔군 참전 21개국의 국기가 함께 게양됨으로써 그 의의를 드높였다.

현화 이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의 대화에서 박 대통령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방미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찾아왔다.”고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현화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일류국가를 만들어 여러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10여명의 한·미 한국전 참전용사를 비롯해 미 육군성 장관,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전 연합사 부사령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4

12

1 2 3 4 5 한국전 참전 기념비 현화 | 20151014

한국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에서 피난민 14,000여명을 구조한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일등항해사로 활약했던 「제임스 로버트 루니 (James Robert Lunney) 제독」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한국인을 도운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한국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소감을 말했다.



5



한·미 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동맹 발전의 미래를 염원하기 위해 개최된 <한·미 우호의 밤>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비전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기까지 한·미 동맹이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오랜 혈맹의 역사 ▲공동의 가치와 이상 ▲양국간 든든한 가교인 재미동포사회 등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진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 과거 60여년의 성공스토리를 바탕으로 양국이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 실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함께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날 행사에는 한·미 동맹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과 그 후손들, 전·현직 행정부인사, 싱크탱크·학계·언론계 등 미국 여론 주요층 인사들과 한국전 참전 용사, 평화봉사단원, 동포 대표, 독립유공자 후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참석자 가운데 갑신정변 후 미국에서 파견된 첫 여성 선교사로서 이화학당의 설립자인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선교사의 증손녀」와 3대에 걸쳐 우리나라를 도와준 「다이애나 두건(Diana Dougan) 전 국무부 본부대사」, 한국에 근무한 평화봉사단원 등 한·미 동맹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격려함으로써, 함께 꾸는 한·미 동맹의 꿈을 통해 더 큰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여정에 나서자고 말했다.

“

혼자 꾸는 꿈은 단순히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더 큰 평화와 번영의 원대한 꿈을 공유하면서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 시대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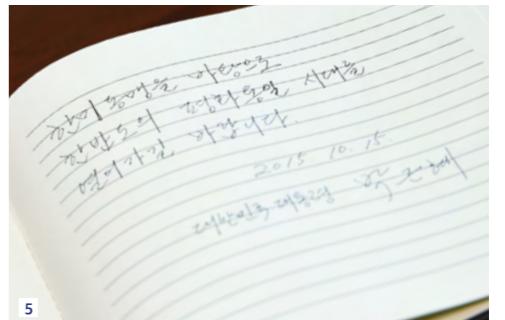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 셋째 날 오전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하여, 공식 의장행사(Full Honor Parade),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 국방장관」 접견, 한·미 장병 격려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했다. 공식 의장행사 참석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이는 미국이 동맹국 정상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고의 예우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개회 선언, 임석상관에 대한 경례(예포 21발 발사), 양국 국가 연주, 대통령 사열, 美 전통의장대 행진 순으로 진행된 공식 의장행사에 이어 「카터 국방장관」을 만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 한·미 사이버 안보 및 우주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4

접견 후 장관 회의실 복도에서 실시된 로프라인 미팅(Rope Line Meeting)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펜타곤에서 생활하고 있는 31명의 미군 장병과 5명의 한국 장교를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장병들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유의 최전선에서 헌신한 선배들의 열정과 전통을 계승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한·미가 같이 가자.”고 당부하며 영어로 “Korea thanks you! We go together!”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자리에 참석한 한·미 장병 모두는 “같이 갑시다!”라고 화답했다.



“

그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 남녘에서 많은 기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통일을 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한·미 동맹은 ‘인류를 위한 동맹’으로 더욱 진화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

미국 방문 셋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전·현직 고위인사들 및 석학 등 미국의 각계 여론 주도층 인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연설을 했다. CSIS는 1962년 설립된 외교·안보 문제 전문 초당파적 싱크탱크로 국방안보분야에서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광복 70주년 및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중추로서 기능해온 한·미 동맹의 역할을 평가하는 동시에 한반도·동북아·글로벌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금번 연설은 박 대통령의 지난 2013년 첫 번째 방미 때 미국의 회합동 연설 이후 워싱턴 D.C.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연설로서 미국 내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2



3



4

PART. 03

첨단산업
경제협력

첨단산업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 한·미 재계회의 총회 특별연설

2015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
2015.10.13. - 2015.10.18.



1 TPP 참여 관련 美측의 환영 및
긍정적 입장 재확인

2 한·미 경제동맹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 열어

- 보건의료, 우주,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11건의 MOU 체결
- 방미계기 총 24건 MOU 체결
첨단산업(11), 엔지니어링 등 제조혁신(10), 무역투자(3)

3 '한·미 우주협력 협정'
조속 체결 약속

4 1:1 비즈니스 상담회 워싱턴 D.C. 뉴욕을 통해
총 2.5억불 2,877억원 실질적 성과 창출



NEW
FRONTIER

“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돼 우주자원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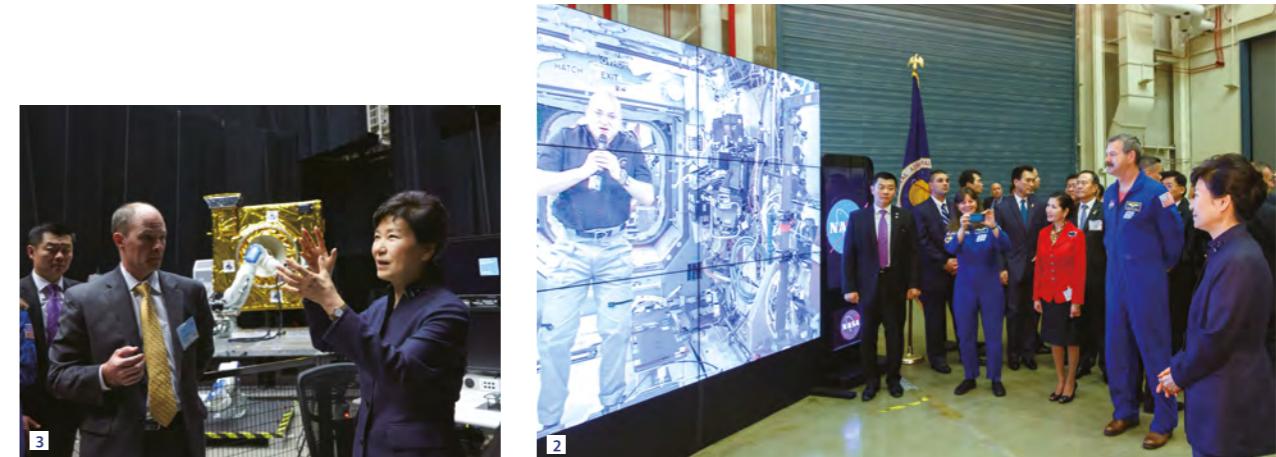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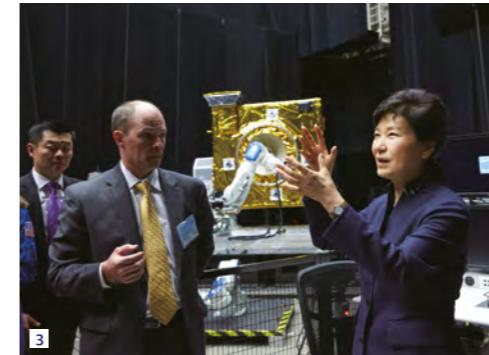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NASA 우주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첨단 우주탐사시설을 시찰하고, 한·미 우주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금년 3월부터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무중력 상태로 체류하고 있는 우주인 「스콧 켈리(Scott Kelly)」가 보낸 영상 환영메시지를 청취했다. 「스콧 켈리」는 “250 마일 지구상공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다드 센터 방문을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스콜리즈(Christopher Scolese)」 소장의 안내로 양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전시 부스를 방문하고, 첨단시설을 시찰하며 로봇팔 작동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국민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하며,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주를 향한 꿈에 함께 도전하자.”고 언급했고, 「스콜리즈 소장」도 이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NASA 우주센터 방문은 한·미 양국이 우주협력을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의미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양국 기관간 태양계 연구, 위성개발 및 기상·대기 측정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미 항공우주국(NASA) 발족 이듬해인 1959년 최초의 우주센터로 설립되어 미국의 우주개발을 이끈 곳이며, 2015년 발사 25주년이 되는 허블우주망원경과 그 뒤를 이어 2018년부터 운영될 제임스 웨브 망원경 개발·운영 등으로 알려진 첨단 우주기술 연구기관

“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인 양국이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혁신을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제조업 新르네상스’의 문도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2]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미 경제사절단과의 첫 일정으로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경제인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은 ‘Making in America’와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제조업에서 신성장 동력과 경제혁신의 모멘텀을 찾고 있다.”며 스마트 혁신과 한·미 공조로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하며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 제조혁신의 근간인 R&D와 엔지니어링 분야의 협력 강화
- ◇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 구축
- ◇ 우주, 에너지 신산업, 보건의료 등 첨단산업의 협력 강화

한편 이 날 오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간 ‘1:1 상담회’가 개최됐는데, 우리기업 104개사와 미국측 바이어 약 190개사가 참석하여 IT·정보보안, 보건의료·바이오, 방산조달,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39건 2.5억불(약 2,877억원)의 실질적 성과가 창출됐다.



[1] [2] [3] 한·미 첨단 파트너십 포럼 | 20151014



1



2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과 美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하여 양국 기업간 그동안의 협력관계의 발전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무역·투자 확대와 창조경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미 재계회의>는 전경련과 美 상공회의소 등 양국을 대표하는 두 단체가 모여 만든 회의체로 지난 1988년 창립총회 이후 양국 재계간 유대강화와 통상 협력관계 증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1 2 3 한·미 재계회의 총회 특별연설 | 20151015

박 대통령은 이 날 특별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이 60년을 지난 지금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혁신’을 통해 미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가자고 하면서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 ◇ 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 ◇ 투자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 ◇ 창조경제 파트너십 제안

“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어려운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미 양국 모두가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



3

I. 첨단산업 협력 총 11건

MOU 명칭	체결 기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에너지 신산업		
1. 에너지 공동연구 과제서명식	(韓) 산업통상자원부 (美) 에너지부	에너지저장장치 및 군사용 마이크로그리드 등 공동기술개발
2. CCUS탄소저장활용 사업 및 기술 협력 MOU	(韓) 한국전력 (美) Southern Company	CCU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공동기술개발, 인력교류 및 기술교류 등 포괄적 협력 추진
3. 스마트그리드 분야 포괄적 협력 MOU	(韓) 한국전력 (美) 메릴랜드주(州)	스마트 그리드 분야 정보교류, 전문가 기술교류, 상호투자 등 포괄적 협력
4. 공동 사업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 MOU	(韓) 한국전력 (美) Beowulf Energy	신재생, 에너지 효율향상 등 에너지 신기술 분야 공동 사업개발 협력
5. 해외사업 전략적 협력 MOU	(韓) 한국전력 (美) General Electric(GE)	최신효율 및 기술적용 기자재 선정을 통해 해외 발전사업 수주기회성 제고
보건 의료		
1. 정밀의료(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료) 및 메르스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협력 LOI	(韓) 국립보건연구원 (美) 국립보건원(NIH)	메르스 백신·치료제 공동개발, 정밀의료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보 및 인력 교류
2. 체외진단기기 공동개발 MOU	(韓) PCL(주) (美) OraSure	호흡기질환, 감염성질환, 암 등 주요 질병의 체외 진단기기 공동개발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 도모
3. 미국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위한 MOU	(韓)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美) Greater Richmond, Virginia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지원 체계 구축
4. 의료기기 공동 R&D에 대한 MOU	(韓)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美) UPMC	미국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개발 등으로 미국 시장 진출
우주, 사이버보안		
1. 대기질 및 환경위성 연구 협력 MOU	(韓) 국립환경과학원 (美) 항공우주국(NASA)	동북아지역의 대기 질 연구협력을 통해 대기 질 개선방안 도출 및 예보 정확도 개선
2. 정보보안업계 3자간 MOU	(韓) KOTRA, KISIA (美) SIA	우리 사이버보안 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3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환, 전시회·상담회 개최 등

II. 엔지니어링 등 제조혁신 총 10건

MOU 명칭	체결 기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첨단제조혁신 공동 R&D 투자 합의서	(韓) 산업기술진흥원 (美) CCAM	첨단제조혁신을 위한 공동펀딩형 R&D 추진 (IoT, 3D 프린팅 등)
2. 첨단산업 파트너십 MOU	(韓) 대한상공회의소 (美) 전미제조업협회	한·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 구축, 양국시장 정보교환, 양국 중견·중소기업 지원 사업 추진 등
3. 공과대학 교육 및 연구 협력 MOU	(韓) 공학교육학회 (美) 공학교육학회	한·미 공학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3D 프린터 관련 공동 워크숍 개최 등
4. 엔지니어링 협회간 협력 MOU	(韓) 엔지니어링협회 (美) 엔지니어링협회	양국간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강화, 제3국 진출 협력방안 모색 등
5. 해외 석사과정 및 인턴 파견 협력 MOU	(韓) EDRC (美) TAMU Energy Institute	
6. 해외 인턴 파견 협력 MOU	(韓) EDRC (美) TAMU MKOPSC	플랜트 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석사파견 및 인턴 프로그램 공동 운영
7. 해외 인턴 파견 협력 MOU	(韓) EDRC (美) AspenTech	
8. 해외 유명 전문교육 프로그램 국내도입 MOU	(韓) EDRC (美) UOP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교육기관인 UOP와 Petroskills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국내개설
9. 해외 유명 전문교육 프로그램 국내도입 MOU	(韓) EDRC (美) Petroskills	
10. 빅데이터 협력 Joint Resolution	(韓) 정보통신진흥협회 (美) 정보기술산협회	빅데이터 정책, 기술, 표준화 등 분야 인력교류 및 연구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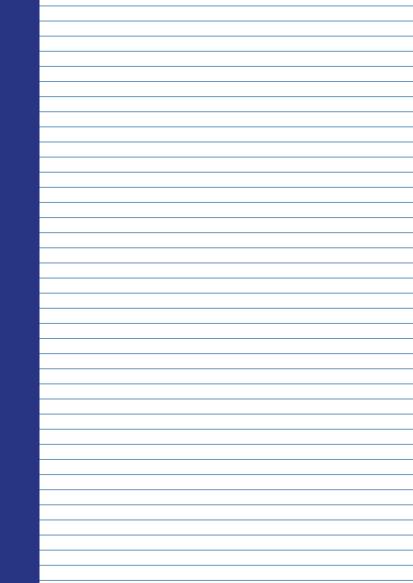
III. 중소기업 미국시장 진출 지원 총 3건

MOU 명칭	체결 기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조달시장 진출협력 MOU	(韓) KOTRA (美) MBDA	우리 우수 중소기업과 미국의 소수자 기업의 협력을 통해 미국 정부조달 시장진출을 지원
2. 창업지원 협력 MOU	(韓) KOTRA (美) ERA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
3. 산업클러스터 협력 MOU	(韓) 산업단지공단 (美) 상무부 경제개발청(EDA)	양국 중소기업이 교역 및 투자시 적합한 지역/클러스터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 제공

PRESENTS

선물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상이 한국을 방문 할 때
면 선물을 증정하거나 받는다. 일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대
통령 선물은 정상 간의 인간적 교감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대통
령 재임기간 중 외교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기념패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 다음에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한·미 동맹 :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미국 방문을 맞아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동맹은 우리 협력의 증거이자, 한반도 및 아·태 지역에서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합니다. 우리 양국 정부는

한반도, 역내 및 세계의 복잡한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간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억지 및 방어하고, 국제사회를 결집시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였으며, 협상을 통해 최상의 원자력협정을 마련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해적 소탕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에볼라와 ISIL의 위협에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경제 관계를 증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한·미 관계가 양국 국민들로부터 깊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우리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이 견고한 기반 위에, 한·미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지평, 즉, 사이버, 우주, 기후변화 및 글로벌 보건 등 21세기 들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습니다. 한·미 관계가 계속해서 진화해 가면서, 한·미 동맹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더 번영하는 세계를 만드는데 협력하고 있음을 과시할 새로운 기회들을 활용하여, 우리는 한·미 동맹을 중요한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한반도 방위

한·미 양국은 최상의 연합 전력을 배치하고,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연합 작전계획에 관해 협력하며, 우리 병력이 최고 수준의 연합 준비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동맹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6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합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간 2+2 회담, 한·미 안보협의회(SCM) 및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등 정례 협의채널들은 우리의 글로벌 전략 동맹을 강화 및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관한 2014년 10월 23일자 양해각서(MOU)에서는, 미측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합니다.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 동맹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독자적인 킬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각자의 독립적인 투자와 방산 기술 보호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에 기반한 방위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도 나타나 있듯이,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평화·안전에 미치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완전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의 목표입니다.

원자력 협력의 선진화

원자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은 우리 양국의 에너지 안보와 함께, 글로벌 전력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핵 비확산을 위한 양국 공동의 의지는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의 초석입니다. 금년 6월 15일 서명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123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 코자 하는 한·미 공동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양국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양국 원자력 산업계간 협력 증진 및 핵안보 등 공동 목표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신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설치하려는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교역 및 경제 관계 심화

한·미 양자 교역 및 투자 관계의 깊이와 폭은 한국이 미국의 6번째 교역상대국이고 미국이 한국의 2번째 교역상대국이라는 사실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0억불 이하였으나, 2014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대되어 360억불에 이르렀으며, 이는 3만 8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한국을 세계 14번째 대미 투자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80억불에서 350억불로 2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많은 교역 및 투자 이슈에 대해 공통된 접근을 하고 있으며, 무역협정들로부터 양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혜택이 발생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G20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다 진전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외환 정책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아·태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을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TPP와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이러한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간의 「산업협력대화」는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촉진, 외국인 직접투자 및 여타 협력적 통상 이슈 등 주제에 대한 우리 양국의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 양측은 10월 14일 제2차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창조경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인정하면서, 글로벌 기업가정신 대사(PAGE) 아너셔티브를 통해 창조경제 파트너십 확대 및 양국의 혁신 기업가들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적 합의를 가지는 중요한 양자, 지역 및 글로벌 경제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2015년중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간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력한 역내 관계 구축

한·미 양국은 강력하고 건설적인 역내 관계를 중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코자 하며, 다양한 수준에서의 3국 회담 개최 등을 통해 최근 제70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형성된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 3국 국방 당국간 정보공유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양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미국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포함하여 3국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대화가 역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성김 대사를 미국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고위급 담당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미국은 2015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고위급 정부간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글로벌 안보 문제 대응

한·미 양국은 공히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민스크 합의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한·미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취약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엔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대응 계획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비핵산 목표들을 함께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이란 핵문제 관련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확고하게 지지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2016-2017년 임기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의장국을 수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핵안보 정상회의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2016년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을 수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한·미 양국은 정례 고위급 군축·비핵산 협의회를 지속하는 한편, 2015년 1월 한·미 반핵산 협의회를 개시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ISIL의 폭력적 극단주의 및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였음을 규탄하며, ISIL 대응을 위한 다국적 국제연대에 파트너로 참여하였습니다. 추가적 대응조치로서 한국은 해당 지역내 피해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공에 동참하였으며, 동 국제연대의 안정화 지원 작업반에서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UNDP의 긴급 안정화 기금에 최초로 기여한 국가들입니다. 또한 한국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해 백악관이 개최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고위급회의」의 후속 행동 아젠다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강력한 파트너로서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및 글로벌 인도지원 수요에의 대응 의지 재확인

한·미 양국은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진전시키며,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우리는 2015년 9월 25일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6일 유엔 개발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향후 5년 간 15개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 보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발표하신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미국의 「Let Girls Learn」 구상 간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지난 6월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 혁신, 파트너십(STIP) 분야에 초점을 둔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습니다. 한국은 물자부족 상황 하 임신 여성 및 신생아들에 초점을 둔 USAID의 'Saving Lives at Birth'를 주제로 한 국제개발공모전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양국은 KOICA의 「혁신기술 기반 창의적 가치창출」프로그램과 USAID의 「Global Development Lab」간의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KOICA와 USAID는 삼성과 함께 가나에서의 지역 보건 데이터 디지털화 사업에 공동 참여중입니다.

새로운 협력의 지평 개척

생물학적 위협 대응 및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진전

한·미 양국은, 국제보건규약(IHR)을 지지하면서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세계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을 진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2015년 9월 GHSA 고위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2017년 선도그룹 의장직 수행을 결정함으로써 GHSA에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GHSA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한국은 최소 13개국, 미국은 최소 3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양국은 서아프리카 에볼라 전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적·인적 기여를 하였고, 에볼라 완전 종식, 보건시스템 복구, 서아프리카에서의 GHSA 목표 달성 및 국제보건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세계 보건안보를 위한 다분야·전사회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자연적 발생, 사고 또는 고의에 의해 발생한 생물학적 위협을 예방, 탐지,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훈련인 한·미 생물방어훈련(Able Response)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GHSA 참가국들이 9월에 열린 2015년 한·미 생물방어훈련을 참관할 수 있었던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보건후생부 또한 한·미 양국 국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시, 미국은 한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미래의 잠재적 전염병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공중보건체계 향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보건후생부간 양해각서가 2015년 6월 22일 개정 및 연장되었음에 주목하면서, 한국 국립보건연구원과 미국 국립보건원은 2015년 10월 16일 정밀의료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생물의학 공동연구, 인력 교류 및 훈련 협력 증진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한·미 양국은 글로벌 안보 및 경제 발전의 최대 위협 요인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찬 행동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합니다. 우리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야심차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타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또한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재원 조성에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 청정에너지 분야 기초 연구개발을 상당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및 동 회의에서 제시된 구상들, 즉, '국제 스마트그리드 행동 네트워크', '초효율적 장비 및 기기 보급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관리 작업반'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가속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스마트그리드,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 대해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마이크로그리드 분석, 설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들의 이행을 위해서도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소불화탄소(HFCs)가 지구온난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한·미 양국은 HFCs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하고,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적정 가격의 HFC 대체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여타 국가들의 저탄소 성장·발전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가까운 장래에 OECD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수출신용금융을 제한하는 야심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투자

우리 양국은 한·미 환경협력협정(ECA) 작업 프로그램 하에, 해양 오염, 해양 산성화에서부터 야생동물 밀거래 및 청정기술 거래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환경이사회(EAC)와 한·미 환경협력협정(ECA)에 따라 설치된 환경협력위원회(ECC)의 차기 회의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은 2015~2017년간 미국의 북극이사회 의장직 수임을 평가하며, 미국은 한국이 북극이사회 읍서버로서 북극 협력에 대해 갖는 관심을 환영합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개최된 북극 외교장관회의(북극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 협력과 혁신, 관여와 복원(GLACIER))의 성공적인 결과를 인식하면서, 양국간 협력 분야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차기 북극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예방, 방지,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속 가능한 해양 어업을 위협하는 IUU 어업에 대처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인 「항만국조치협정」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및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해양 산성화, 해양 폐기물, 기후변화가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 등 중요한 신규 연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공동 작업 증진을 위해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협정」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이버 공조 확대

한·미 양국은 사이버공간의 개방성 지속과 안전성 강화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이버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 자유와 번영,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에 기반한 인터넷 거버넌스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주목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도 국가들은 안보, 안정, 타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2015년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이 채택한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양국 정부는 국제법이 사이버공간내 국가행동에 적용 가능하며, 평시 사이버공간상 국가행위에 관한 추가적이고 자발적인 규범이 국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합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1) 어떠한 국가도 의도적으로 핵심기반시설을 손상시키거나 핵심기반시설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온라인 행위를 행하거나 알고서도 지원해서는 안 되며, (2)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기업이나 상업부문에 경쟁상의 혜택을 줄 의도로 지적재산권, 산업기밀이나 여타 기업비밀을 절취하는 사이버 행위를 행하거나 알고서도 지원해서는 안 되고, (3) 모든 국가는, 사이버범죄 및 테러 목적의 정보통신 기술 사용에 대해 수사하거나, 자국에서 발원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타국의 지원요청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

우주 협력 모색

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국제법의 적용성과 이러한 자발적 규범들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모든 국가들간에 투명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은 사이버공간 내 국가행동에 국제법이 적용되는 방식의 구체화, 평시 책임있는 국가행위에 관한 추가적·자발적·비구속적 규범 식별 및 촉진 등 사이버공간 관련 중요한 국제안보 문제에 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유지하고, 모든 이용자들이 사이버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규범을 식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사이버안보 협력이 한·미 동맹 전반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이버방어 관련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1) 사이버위협, 특히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공유 강화, (2) 사이버 침해사고에 관한 수사공조 강화, (3) 군사분야 사이버 협력 심화, (4)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협력, 교육 및 인력개발, 사이버보안 산업간 기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양국은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국방부간 사이버협력작업반 등 기존 양자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3년 5월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어 2013년 11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 이어, 2015년 10월 7일~8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ICT 정책포럼의 유익한 결과 또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양국간 기존의 긴밀하고 포괄적인 사이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백악관간 사이버 협력 채널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민간 우주 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항공 협력 및 민간·평화적 목적의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기본협정」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 내 체결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 국가항공우주국(NASA) 간에, 각국의 미래 정지궤도 임무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 공중 및 인공위성으로부터의 관찰 결과를 모델링 툴과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간의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연구(KO-RUS-AQ)」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한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태양계 과학 증진을 위한 전문성 제공을 위해 NASA 태양계 탐사 연구 가상 기관(SSERVI)에 참여하기 위한 준회원 가입 협정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T)과 NASA는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사용을 촉진시키고자 2016년 개최 예정인 해양 현장 관측 캠페인에 관한 양해각서를 준비중입니다.

한국 기상청(KMA)과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위성정보 활용을 극대화하여 기상 예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제도 기상위성을 활용하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기관은 한국 기상청이 전지구 극궤도 기상위성 관측망에 저궤도 기상위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이는 전지구 관측 시스템에 크게 기여하고, 글로벌 기상예보 모델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 양국은 또한, 연례 국방 협의 및 정책 대화를 통해 우주 안보 관련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6년 제7차 우주협력실무회의(SCWG) 및 제2차 한·미 우주정책대화 개최를 기대합니다.

과학 기술 협력 확대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심도있고 오랜 양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국 정부는 과학, 기술 및 혁신이 공동 경제 번영을 이루고, 우주 탐사, 공동 보건, 기후 변화 완화, 정보·통신 기술, 글로벌 안보 등 분야에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나노 기술, 첨단 제조산업, 생명공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 연구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를 확인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 모범사례 정보 교환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차기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2016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간 유대 강화

한국은 미국내 개인 소유자들로부터 환수된 어보 두 점을 가능한 조기에 한국에 반환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합니다. 2014년 7월 한국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부가 서명한 「문화재 보호, 회수 및 원상회복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러한 국가적 보물의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력을 강화시킵니다.

한·미 양국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여성 및 소녀들의 경제 활동 능력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G20 회원국으로서, 한·미 양국은 2025년까지 여성의 노동참가율에 있어서 남성과의 격차를 25%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2015년 7월 질 바이든 부통령 영부인을 맞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근절 및 소녀들에 대한 투자를 통한 차세대 여성들의 권익 향상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 파트너십 심화

풀브라이트(Fulbright)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동종 프로그램 중 하나인 「풀브라이트 영어보조교사(ETA)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번 방미를 기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풀브라이트 미국학 연구 보조금 프로그램」은 한국 내 미국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촉망받는 한국 학자들에게 체계적인 선진 미국학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미 양국은 워킹 휴리데이 프로그램 및 2009년 이래 2,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낸 웨스트(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J-1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은 한국 대학생 및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최장 18개월 동안 미국 어학연수, 인턴십 및 독립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1년 이래 참가한 총 31명의 탈북 학생들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실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다양한 인턴십을 통하여 경력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했으며, 자신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통일 문제에 기여하게 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끝.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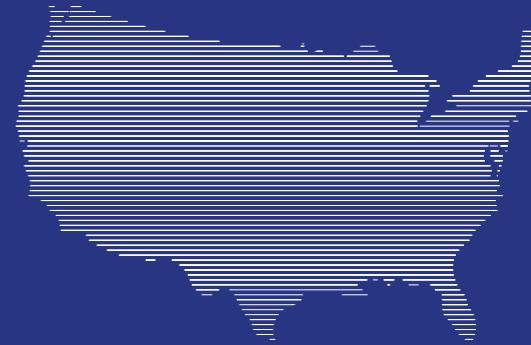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발행일 2015.11.



2015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기
